

동성애로부터 자녀 보호할 권리 찾자

동성애 교육 반대 위해 4월까지 서명운동 재전개

SB48 법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발의안 (Parental Right in Education(PRE))을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50만5천명의 서명 운동이 시작된다.

지난해 말에는 공립학교 동성애 관련 교육 의무화 법안(SB48)을 저지하기 위한 50만5천명의 서명 중 7천명의 서명이 부족해 이 법안을 막지 못했다.

SB48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칠 수 있게 됐지만, 남가주교협에 따르면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2014년까지 동성애 항목이 들어간 교과서 제작이 어렵게 됐다. 그러나 구두로는 교육이 가능하다.

PRE 발의안의 취지는 SB48 때문에 침해당한 부모의 권리, 학생의 권리, 교육자의 권리를 되찾아 준다는 것에 있다.

7일 오후 남가주교협(회장 변영익 목사) 관계자들은 교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RE 발의안을 위해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변영익 회장은 "지난해 SB48을 저지하지 못해 기회를 놓쳤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며 "PRE는 자녀들이



동성애 교육 저지를 위해 다시 한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사진은 기자회견에 나온 교협의 양경선 사무국장, 변영익 회장, 박성규 부회장.

잘못된 가르침을 받길 원하지 않으면 교실에서 빼내 올 수 있다는 '부모권리보호'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변 목사는 "오는 27일에 흑인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서명에 동참하기를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SB48 저지를 위해 헌신했던 주세운교회의 박성규 목사(교협 부회장)는 "이 땅을 도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회다. 이번엔 가톨릭과 불교도 참여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또 박 목사는 "서명을 많이 받기 위해 모든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지난번엔 달의 시간밖에 없었지만 이번엔 석 달의 시간이 있다. 아시안, 흑인, 라틴계 등 타민족의 서명을 받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협 측에 따르면 PRE는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되찾자는 것으로 비신앙인일지라도 자녀 교육 권

리 확보에 관심있는 이들의 서명이 기대된다. 변 목사는 "앞으로 어떤 이상한 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칠 경우 '부모의 권리'를 법적으로 공식 사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발의안에 필요한 서명이 모이면 11월에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참여에 관한 문의는 323-735-3000(교협)으로 하면 된다.

토마스 맹 기자

INTERVIEW

목회는 관계성

성도에게 위로 주고 싶어

엄영민 목사. 그는 참 조용한 목회자다. 소리로 크게 지르고 성도들을 들들 부어야 열심히 목회자라는 말을 들을 법한데, 그는 오히려 조용하다.

그러나 그렇게 조용한만큼 성도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듣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려는 따뜻한 목사다. 아픔이 있던 교회에 부임해 성도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감싸 안고 함께 울고 웃으며 목회한 지 올해로 벌써 20년이 됐다.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전공을 공부하고자 미국에 유학했으나 한국에서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신학'이라는 학문이 그를 이끌었고 결국 목회에까지 이르렀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로 진학해 신학을 마치고 목회자로 안수받았으며 성경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UC얼바인에서 고전문학으로 Ph.D. 과정을 밟기도 했다.

그는 오렌지카운티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인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의 담임목사로서 12년간 섬기면서 교회의 치유와 부흥을 이끌어 왔고 올 해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맡아 이 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을 주도하고 있다. 또 미주한인예



엄영민 목사

수교장로회(KAPC) 남가주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My Brother My Lord(나의 형 나의 주)라는 제목의 소설을 저술해 출판한 바 있다. 이 책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영적 순례기를 소설 형식으로 쓴 작품이다.

또 프랭크 보어햄의 명저서 (A Text That Changed the World)를 (역사를 변화시킨 말씀)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공동 번역하기도 했다.

엄영민 목사로부터 그의 목회와 교회연합 사역 이야기를 들어 본다.

→ 2면에 계속

"우리가 밟는 곳마다"

매달 한번 교회 밖에서 새벽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 크로스로드교회는 Prayer Walk라는 특별한 새벽기도회를 대학 캠퍼스, 도시 길거리에서 드린다.

10년 전 교회가 캠퍼스이트 풀러튼 캠퍼스를 빌려 예배 드릴 때부터 이들은 대학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배출되길 새벽에 기도해 왔다. 그러던 중 대학의 벽을 넘어

풀러튼 시를 위해 기도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매달 첫째주 토요일 새벽 6시부터 골목 구석 구석을 다니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치노힐스로 이전한 후에는 치노힐스의 곳곳을 다니며 기도하고 있다. 교회 주변에서 시작돼 치노힐스 시청, 물, 도시가 보이는 언덕 등 모든 곳이 기도 장소다. 전길성 담임목사는 "너희 발바



크로스로드교회 성도들이 치노힐스를 바라보며 뜨겁게 찬송하고 있다.

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터 박 기자

귀국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TSC

crover GREEN HOME INNOVATION 친환경 미래 에너지 **크로버** 엔프렌LED가 당신의 눈을 선명하고 환하게 밝혀 드립니다

Flexible LED desk lamp

LED 램프/ 눈부심 방지 커버

추천의 글
LED 확대경 램프를 추천합니다

새로 개발된 LED 확대경 램프를 얼마전에 어느분의 소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눈이 부시지 않아 눈을 보호해 주고 피곤치않게 도와주며, 건립도 덜 소모케하며, 열도 나지 않아 참으로 친환경적인 새로운 램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글자마저 확대해서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참으로 실용적입니다. 램프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고려하여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011년 9월 20일

박희민 목사

***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에 쓰여집니다.

Los Angeles * 정스백화점 (213) 389-1111 * Fullerton * 나눔 홈쇼핑 (714) 515-3408 * Torrance * Good 데이비스 (310) 326-6666 * Las Vegas * SKY-N 홈쇼핑 (702) 370-3366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crovergreen.com 제품상담 및 대리점 문의 **crover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2605 S. Santa Fe Ave. Vernon, CA 90058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엄영민 목사 인터뷰

“예수님의 목회는 위로와 안식의 목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를 거쳐서 담임목사까지 되었는데 이런 케이스가 참 드물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나 능력 면에서 제가 맡기에는 상당히 과분한 교회를 맡았습니다. 담임 목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제일장로교회처럼 큰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한 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를 거친 사람이 곧바로 담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할 수 있습

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한 비결에 관해 많은 분들이 묻곤 하는데 저는 웃으면서 “제가 갈 곳이 없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성도들의 사랑을 과분하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저를 전도사 시절부터 주목 지켜보던 성도들이 누구보다 저를 잘 알았기에 교회가 힘들던 당시 “그래도 교회 사정을 잘 아는 엄영민 목사가 담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 같습

니다. 1992년 1월에 전도사로 부임한 이래, 1994년 6월 부목사가 되고 2000년 2월 담임이 됐으니 이 교회에 20년동안 있었고 담임이 된지는 12년이 된 셈입니다.

-그런 관계성의 지속이 목회에도 큰 도움이 되셨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목사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 사역하는 기간이 길다. 풀타임 목회자들은 평균 10여년 가까이 이 교회에서 섬기

다. 저는 부목사들에게 “오래 있어야 목회가 된다. 목회는 사람과의 관계성이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합니다. 저는 한 교회만을 섬겼고 한 교회에서만 목회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신있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목회의 트렌드를 이야기 함에 있어서 목사님의 그런 목회 스타일은 다소 우직해 보이는데요.

목회자들에게도 각각의 성품과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 성품을 떠나서 목회할 수는 없습니다. 제 경우는 성격 자체가 외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제가 부임할 당시 교회에 큰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때에 담임이 되어 저는 일을 벌이기 보다는 상처를 치유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최우선 목회 가치로 설정했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저를 담임으로 청빙한 이유도 저의 이런 면을 알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첫 담임목회였기에 큰 의욕이 앞서기도 했고 한번 일을 해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와는 달리 교회는 저에게 위로를 요청하고 있었습다. 그리고 그런 제 목회의 스타일과 철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저는 목회의 경력도 짧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1995년도에 받았는데 그로부터 5년 뒤에 담임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부임할 당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했지만 1대 담임목사님이 닦아놓은 건강한 토대가 있었기에 곧 교회는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특출나게 무슨 목회를 잘 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철학이 치유의 목회라

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성품이 사나워집니다.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되던 일들도 교회가 불안해지면 문제로 불거집니다. 저는 부임한 후, 교회에 있는 문제의 소지를 줄여 나가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줄어들수록 교회는 안정되고 성도들 안에 있는 불안감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많이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교회는 전반적으로 볼 때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 외부 사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 보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역을 15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교회들이 홈리스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15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했다는 점은 큰 자랑입니다. 1년에 한두번 정도만 빠지고 매주 했으니 어렵잖아도

위로와 섬김의 목회로 달려 온 20년

은혜받으면 저절로 헌신하게 돼

15년째 홈리스 사역 등 자랑거리

성도 한명 한명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도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3-4년이 지나고 나면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 일하려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목회는 위로와 안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하려면 성도들을 좀 몰아치기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중에는 아직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힘들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들은 몰아치기 보다 예배를 통해 은혜받고 힘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일을 하려 합니다. 저는 그런 위로와 안식을 성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래 걸로 드러나지 않아도 면면히 다양한 사역이 진행되어 왔다고 들었습니다.

수백명입니다. 15년이나 하다 보니 이제는 홈리스들의 참여도 뜨겁습니다. 과거 홈리스이던 한 사람도 지금은 홈리스가 아니지만 저희가 사역하는 장소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성도들은 힘들어 하기 보다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성예배도 아마 우리 교회에 가진 특별한 사역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수적 교회이다 보니 여성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자리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여성들을 맡아 가르쳤는데 우리 교회 여성들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리더십이나 영성이나 헌신이나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적극적으로 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성예배를 신설했는데 4년동안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 예배를 통해 은혜받고 회복되고 기도하며 찬양하니 너무도 좋습니다.

TOP MEDIA 교회학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취업전문의 직업대학 ORT 연방정부 학력공인대학. 메디컬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건축설계, 의사보조, 약사보조, ESL,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그래픽,포토샵.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Los Angeles: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요즘 제일장로교회에 이전과는 다른 뜨거운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 변화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고 설교하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 단체나 기관에서도 열심히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제가 장로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 저기 단체를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니다. 구체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선교의 길을 보여 준다든지, 봉사의 길을 제시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한인교회의 사명 중 2세 사역에 대한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까.

2세 사역은 교회마다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2세 사역에 있어서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인교회의 방향이 대체로 2세들을 키워서 2세들에게 2세 사역을 맡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세들은 1세들에 대한 실망감도 갖고 있고 어른들과 문화적, 언어적인 면에서 독립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는 우리가 2세 사역자들의 사례비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2세 교회가 모두 자립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세 교회의 독립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한 많은 교회들이 사실 방향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1세와 2세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멘토링해주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서로 보완해 주고 돕는 성숙한 동반자적 관계가 세워지면 다같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교협 회장이 되셨는데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섬김, 2세 사역 등의 문제는 반드시 교회가 연합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렌지카운티 교협에서는 조만간 2세 교회와 1세 교회의 대화의 창을 열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교회를 위한 교회연합체로서 교협이 할 수 있는 본연의 일들을 찾아 가고자 합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연합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주류교회와도 연합해 미국교회의 일원으로서 가능하고자 합니다.

또 그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오렌지카운티 단체인 조찬기도회를 열어서 단체장들을 초청, 위로하고 섬기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매우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인만의 독특한 영성 왜 주셨나

성도라면 당연히 사회 섬겨야

교회가 연합할 때만 가능한 일 있어

을 많이 합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더해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더 커졌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성도들은 "우리 목사가님이 부흥사가 되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신년을 맞이해 특별새벽기도회를 했는데 전통적인 장로교회인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기도들이 성령이 폭발하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사회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오렌지카운티를 설명할 때 이곳을 LA와 비교한다면 그곳에 비해서는 안정된 지역입니다. LA와는 달리 보수적인 공화당 지역이며 한인교회의 정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보수적이며 안정된 지역성의 영향을 교회도 받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이민 온 지 연수가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정서가 상당히 신앙적이며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교회가 남가주 전체와 미주 전체 한인교회를 위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일장로교회와 오렌지카운티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교회인데 그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1977년 창립됐으나 올해로 35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인교계 여러 면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했고 섬겨온 교회입니다. 30주년을 기념해 제가 한번 집계를 해 보니, 목회자가 30여명 우리 교회에서 배출됐고 선교사도 10여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 출신 중에 교단 총회장을 하신 분이 두 분이나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분립되어 나간 교회도 어렵잡아 6군데가 넘습니다. 한인사회적으로 보면 한인회정도 수명이 배출됐습니다.

지금은 한인교회가 많아지고 규모가 큰 교회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부담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십을 가진 교회로서의 책임감만은 여전히 줄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계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자랑스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점을 어떻게 독려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회가 자기 교회만의 이기주의를 넘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고의 틀, 즉 세계관을 기독교적으로 교회가 만들어 주어야

다른 단체들이 협력하는 형식입니다. 교계 단체들 간에 경쟁의식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낭비일 뿐입니다.

보통 연합회에 나가면 개교회 목회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사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가진 책임을 생각할 때 연합하

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입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교회들의 도움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형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빠른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를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24hr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간판부 Tel :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동부사인&트로피

무엇을 할까요?

목(경부) 노후 생애는 행복하게 마무리 하고, 목근육의 긴장을 풀어, C커브가 되게 합니다. 학생, 사무원, 가계목, 목니스트도 예방합니다.

통상부 굽은 등을 펴줍니다 (허당사무원, 비만여성, 팔굽혀펴기, 무릎, 허리, 어깨도 좋습니다. (말린만은 통상부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NOVEL BACK 30일 30% GUARANTEED

please call (888) 516-2291 or visit us at www.SaeArc.com

장재효 목사 초청 집회

집회 일정

- 2월11일(토) 오전 6시30분 인랜드온누리교회(마원철 담임목사)
- 2월12일(일) 오전 11시 엘바인 한민음교회(최상준 담임목사)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신학연구 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a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위원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전국기독교 총 연합회 총재
- 성운동산(도원, 경로원, 수양관) 원장
- 바쁜목회연구원 원장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주 관 : 국제성은복음선교회(International Holy Grace Gospel Mission)
 후 원 : 엠마오장로교회,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남가주광명교회, 주님의교회



OC 34대 목사회 신증은 목사 취임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하나되고 용서하는 목사회가 되길”



OC목사회 신임 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가 신증은 신임회장.

오렌지카운티한인목사회가 6일 오후 6시 에너하임에 소재한 작은 자교회(안근성 목사)에서 33대 회장 손태정 목사가 이임, 34대 회장 신증은 목사(플러튼제일교회)가 취임하는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신임회장 신증은 목사는 “조정 경기에서 키잡이가 중요하지만 여력이 하나 돼 움직일 때 앞으로 잘 갈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참여 해서 도와 주셔야 한다”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되는 목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설교를 맡은 한중수 목사(얼바인침례교회)는 ‘비전의 능력’(창 50:19-21)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 목사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기억하고 살았을 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었다”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안에 있으면 시기하지 않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하나 돼 합력하여 선을 이룰수 있다”고 전했다.

예배는 사회에 수석부회장 고건주 목사, 대표기도에 회계 이윤재 목사, 특별찬양시간에 플러튼제일교회 율동팀, 성경봉독에 협동총무 김용찬 목사, 봉헌기도에 서기 김홍권 목사, 축사에 OC교회회장 임영민 목사, 전도연합회 회장 손찬우 집사, 축도에 중경회장인 정영수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오렌지카운티목사회는 다음 월례회는 3월 19일 베델만인교회(순인식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빅터 박 기자

〈사랑의 하나님〉

남가주목사회 설교집 펴내



남가주 지역 52명 목회자의 설교가 담긴 설교집이 출판된 것을 기념해 출판 감사예배가 있었다.

52명의 남가주 목회자들 설교 수록

남가주한인목사회가 설교집 출판 기념예배를 5일 오후 5시에 풍성한교회(박효우 목사)에서 드렸다. 설교집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강준민 목사, 김영대 목사, 김재연 목사, 민종기 목사, 류종길 목사 등 총 52명의 남가주 한인 목회자들의 설교가 수록됐다.

이번 설교집은 전 회기인 제 44대 남가주목사회가 큰 뜻을 갖고 추진해 만들었다. 편집위원은 추창호, 김종태, 김영모, 이우형 목사이다.

발간사를 전한 정요한 목사(준비위원장)는 “좋은 설교집은 서로에게 유익하다. 설교는 설교하는 목사에게는 사명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기 때문이다”며 “목회자는 강단에서 음성언어인 말로 하는 설교도 잘 해야 하지만 글로써 표현하는 문자 언어에도 능숙해야 한다. 설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를 받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인사말을 전한 박효우 목사(직전회장)는 “이민 목회자들은 특별히 눈물과 무릎으로 살아온 애환이 많다”며 “이민목회의 땅과 눈물, 생명이 담긴 귀한 설교집을 많이

애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서 ‘영혼의 등불’(시119:1-5)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석태운 목사(중경총회장)는 “부족한 목회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며 “과학의 이론은 변하지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 생각한다. 이민사회의 영혼의 등불이 되는 설교집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축사에서 박용덕 목사는 “말은 한번 하면 없어지지만, 글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며 “설교집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출판기념예배는 사회에 김영모 목사(수석부회장), 대표기도에 김종태 목사(부회장), 성경봉독에 정중운 목사(부회장), 특별찬양에 셰퍼드찬양단, 설교에 석태운 목사(중경총회장), 인사말씀에 박효우 목사(직전회장), 발간사 및 광고에 정요한 목사(준비위원장), 축사에 박용덕 목사(OC교회 직전회장), 축도에 김영대 목사(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림형천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나성영락교회, 림형천 목사 송별회 열어



림형천 목사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성도들과 송별회를 가졌다.

지난 1월 말에 담임목사직을 사임한 나성영락교회 림형천 목사 송별회가 5일 오후에 교회 체육관에서 열렸다. 1부 일반교인들 대상, 2부 직분자를 대상으로 열린 송별회에

림 목사와 동고동락했던 많은 성도들이 참석, 떠나는 길을 축복했다. 이 자리에서 소감을 전한 림형천 목사는 “지난 8년 반 동안 교회에서의 추억을 잊을 수 없을 것이

다. 한국교회 목회 계획은 단 한번도 없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폭풍같은 시간이 지나갔다. 거취 문제를 걱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나성영락교회에 더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큰 축복이 임하길 기도하겠다. 여러분을 만났던 목회자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민교회 목회 경험을 살려서 한국교회에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 한국 소년원을 방문해 봤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기도를 부탁한다. 그동안 대외적인 일들은 해왔지만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잘 케어하지 못한 모습이 많았다. 직분자들이 더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한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LA카운티 커미셔너가 참석해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 온 림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교인들도 림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부목사들의 감사의 합창, 청년부 학생들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청년들은 영상 메시지에서 “여태껏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며 “앞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곳에서 건강하게 사역하시길 바란다”고 림 목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림형천 목사는 지난 2003년 박희민 목사의 후임으로 나성영락교회에 부임해 담임목사로 사역을 펼쳤다. 림 목사는 3월 말 경에 본국 서울 잠실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한다.

토마스 맹 기자

LA 부시장 “주민들이 선거구 규정해야”

재향군인회 주최로 간담회 열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회장 김해성 목사) 주관으로 한인단체장과 LA 부시장 AUSTIN BEUTNER와의 간담회가 6일 오전에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BEUTNER 부시장은

FTA가 양국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LA가 할만하기 때문에 시에서 향만을 유용하게 쓰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BEUTNER 부시장은 미주 한인 이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질문에, “서로 듣고 존경하고

일하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며 “한인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동참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남가주목사회, 산악회, 재향군인회, 6.25동지회, 월남참전동지회 등의 단체 관계자 및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토마스 맹 기자



재향군인회가 한인단체장과 LA 부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수강생 모집

의료선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선교에는 매우 효과적이거나 전문의료인이 되려면 장기간의 의학 수업이 필요하며 과다한 학비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과정은 단기간의 교육으로 다양한 의학분야의 필요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완벽한 치료를 육성합니다. 수기치료는 약품이나 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손만을 사용하여 온갖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술입니다. 금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기 위해 의료선교사 육성,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안내

신청자격 :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으로 선교에 뜻이 있는 남녀

- 모집대상 : 1. 목회자 또는 선교사 (해외 파송 선교사)
- 2. 선교를 원하시는 평신도
- 3. 단기선교 또는 의료선교 사역을 원하시는 교회 선교팀

모집인원 : LA 지역 남녀 10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제한함)
Orange County 지역 : 남녀 10명

교육기간 : 총 20주 (매주 2회 2시간 교육)

접수마감 : 2012년 2월 11일

개강일자 : 2012년 2월 14일

교육장소 : LA지역- 2836 8th St. #106, Los Angeles
Orange County- 부활교회(아리랑마켓 뒤)

접수처 :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13-381-7273 / 213-605-2928
charliespark@hanmail.net

교육내용 (한의학/ 카이로프랙틱/ 근육치료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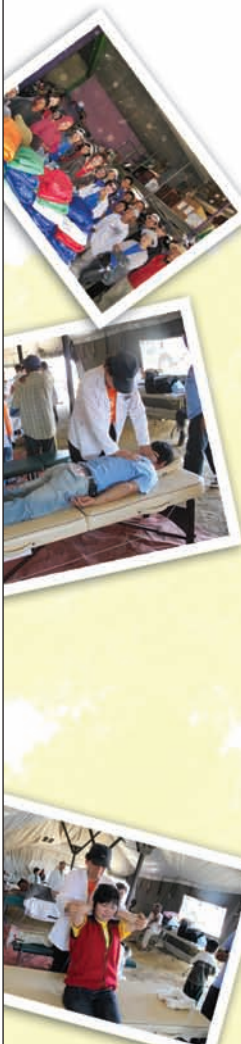
1. 근육 교정학 : 각종 통증치료술 (근육 전문 치료술)
2. 체형 교정학 : 변형된 체형을 바로 잡는 교정술
3. 척추 교정학 : 변형된 척추를 교정하여 신경의 흐름을 도와줌
4. 영양 물리학 : 자연식요법 (난치병 예방 및 치료)

교육의 특징

본 재단의 수기치료 교육은 한의학, 카이로프랙틱, 근육 전문 치료를 종합 교육하므로 완벽한 치료를 육성하는 전 세계의 유일한 의료선교사 육성 기관입니다. 손을 사용한 치료 방법은 주님이 기적을 보이신 능력의 은사와 동일합니다.

수료 후 특전

1. 수료증 및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자격증 수여
2. 해외 파송 선교사 후원하여 드립니다.



미주 한인 “애국정신과 신앙유산 전수할 것”

회장 이취임식에 교계, 사회 단체 운집해 축하

미주 한인 이민 역사는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이 미국 하와이에 첫발을 내딛으며 시작됐다. 이날을 기념해 그로부터 102년이 지난 2005년 12월 미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미주한인의 날을 제정했다.

미국 내에서 소수민족 최초이자 유일한 기념일이 제정되도록 한 숨은 공로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주한인재단이다.

지난 2월 1일 LA 가든스호텔에서는 미주한인재단 LA지역 회장 이취임식이 150여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취임한 빈센트 김 회장은 “우리는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자긍심을 갖고 자녀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애국애족의 민족정신과 신앙의 고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일을 미주한인재단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설교에서는 박성규 목사(주님



박성원 미주총회장이 이취임 취임한 빈센트 김 LA회장에 재단 기를 전달하고 있다.

세운교회)가 단1:8-9을 본문으로 “이 단체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사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취임식의 사회는 이정희 부회장이 맡았고, 개회기도는 오상철 목사가 맡았으며, 환영사는 변영익 목사(남가주교회 회장)가 맡

았다. 또한 취임선서 순서는 LA 이사장인 정시우 목사가 맡았고, 축도는 박영창 원로목사가 맡았다.

빅터 박 기자

연목회 정요한 목사 회장 선출

남가주 연세동문목사회(연목회)는 지난 1월 31일 로텍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영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이원열 목사의 설교, 정요한 목사의 대표기도, 김영일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은 정요한 목사(미주베델교회)를 남가주 연목회 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에 김영일 목사(햇빛선교회), 부회장에 박종대 목사(남가주중앙교회), 김기동 목사(충만교회), 류재덕 목사(안양교회), 총무에 고재원 목사(샘솟는교회), 서기에 김철 목사(한마음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정요한 목사

한편, 회장 정요한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거쳐 미국 배

다신학대학원에서 종교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으며, 미주기독교연론인협회 회장,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장, 지난해는 남가주한인목사회 총무를 역임한 바 있다.

연목회는 연세대학교 출신 목회자들의 모임으로 LA에서는 약 6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선승민 기자

남가주리디머교회 창립 3주년



담임 김요섭 목사와 임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가주리디머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이했다. 창립 이후 말씀 증거 및 복음 전파는 물론 지역사회 섬김에도 앞장서 온 리디머교회는 3주년을 맞이해 장로와 명예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일꾼을 세우는 한편, 김진옥, 박금영 선교사를 캄보디아로 파송했다.

5일 드린 기념감사예배에서는 임진호 장로, 김태균 명예장로, 이덕영 안수집사, 이귀례, 황정자 권사가 취임하며 더욱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길 것을 약속했다. 또 3주년을 감사하며 열매교회의 안국련 목사, 나성서부교회 이정현 목사, 오렌지한민교회 윤성원 원로목사, 미

주총회대학교 총장 정고영 목사 등이 예배 식순을 맡았다. 이정현 목사는 고후6:11-13에 근거해 “성도의 구할 것 두 가지”를 제목으로 설교하며 “넓은 길로와 명예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일꾼을 세우는 한편, 김진옥, 박금영 선교사를 캄보디아로 파송했다. 예배 후에는 김진옥, 박금영 선교사를 파송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담임 김요섭 목사는 “지난 3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고 삶이 변화되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선교사까지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선승민 기자

알차고 보람된 노후 꿈꾼다면

나성순복음교회 실버드림대학 개강



실버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권오승 위원장, 박용숙 봉사부장, 지길준 부장

“노인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을 따라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담임목사)가 실버드림대학을 개교한다. 이 말씀 그대로 노인을 공경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 학교를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신앙이 없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생활영어, 컴퓨터, 건강체조, 노래교실, 바둑교실, 각종 특강이 이 학교에 개설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는다. 이에 더해 점심식사, 교재, 셔틀 버스 운행 등 모든 혜택이 제공되며 16주로 구성된 한 학기에 30불이다. 실버드림대학을 추진하고 있는 권오승 장로는 “저렴한 학비에 최고의 강의, 최고의 식사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

해 교회가 재정면으로나 헌신면에서나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3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6주간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봄학기가 열린다. 성도이건 아니건 구분 없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권 장로는 “주정부 가 예산을 삭감하며 많은 노인 대상 어틸트스쿨이 문을 닫고 있다. 이런 때에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겨서 혹시라도 소외될 수 있는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시민권 수업 등 과목을 더욱 확대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확고히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나성순복음교회 측은 담당 교역자로 서미수 전도사, 위원장으

한인교회 무료진료 받으세요

내원자들 자유롭게 헌금...이를 교회에 다시 헌금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인 자생한방병원이 남가주 한인들을 위해 의료 선교를 시작했다.

첫 무료진료 행사는 5일 오후에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풀러튼에 위치한 자생한방병원 분원에서 열렸다. 이날 30여명의 교인들이 방문해 침, 카이로프랙틱, 엑스레이, 체지방검사, 성장판 검사 등의 검사를 받았다.

내원자들은 자유롭게 감사헌금을 했으며 이 헌금은 교회 측으로 전달됐다.

교회 입장에서 이 행사는 성도들이 무료로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또 성도들의 진료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의 감사헌금도 받아 교회 사역에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재필 대표원장은 “OC교회 협의회 의료분과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교회에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해 왔다. 풀러튼 분원에 한약, 침, 교정치료, 디지털 엑스레이 등이 구비돼 있기 때문에



자생한방병원의 진료 모습

교인들에게 무료진료를 해드리고, 성도들이 감사헌금을 해주시면 교회에 의료헌금을 전달한다”며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매월 두 번 OC 지역부터 시작해 LA를 거쳐 타주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를 받은 한 성도는 “단계별 풀코스료 전문적인 진료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의사들도 친절해서서 벌써 다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척추관절센터, 웰니스센터, 카이로프랙틱센터 등을 갖추고 각종 관절 및 디스크 클리닉, 산후 클리닉 및 자세교정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714-773-7000

토마스 맹 기자

로 권오승 장로, 부장으로 지길준 집사 등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이번 사역을 시작했다. 현재 교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관심자

들은 지길준 부장(213-247-6657)에게 연락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총회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가 2012년 정기총회를 5일 오후 6시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2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 회장에 김미선 집사(일서연합감리교회 음악 디렉터)가 인준됐다. 김 집사는 전 회기 수석부회장으로 자동으로 차기 회장직을 승계했다. 수석부회장은 조성환 목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음악 교수)가, 부회장은 임인용 집사가 각각 선출됐다.

이 단체는 지난해 박신화 교수 교회음악 세미나, 조성환 목사 21세기 찬양사역 세미나, 제1회 남가주국악찬양한마당, 제30회 남가주성가대합창제 등을 개최했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 갈멜산기도원

개원 예배 및 기념 기도성회

개원 예배 2012년 2월 19일(주일) 오후 5시

설교 송정병 목사(미주영안교회, 미기총 대표회장)

축사 변영익 목사(벨렙장로교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축사 김영대 목사(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기도성회 2012년 2월 17일(금, 저녁) ~ 2월 23일(목, 저녁)

오전 10:30, 저녁 7:30(주일제외)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강와 LA)담임
나사렛 대학교 겸임교수/KWMA 운영이사
GST(신학평론원)대표
종신대학교(Th.M/Th.D.candi)/미국 ORU(D.Min)

미주 갈멜산기도원 안내

매월 정기 기도성회 | 매월 세번째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주 목요일 저녁까지
오전 10:30, 저녁 7:30(주일제외)

매일 기도회 | 매일 저녁 7:30(주일제외)

미주 갈멜산기도원 TEL: (818) 306-4912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U.S.A

기독교인 결혼정보회사

HANA NOBLESS

"초혼.재혼 고민하지 마십시오"

Young Kim

1109 S. Kingsley Dr., #301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514-2004

E-mail: youngkim@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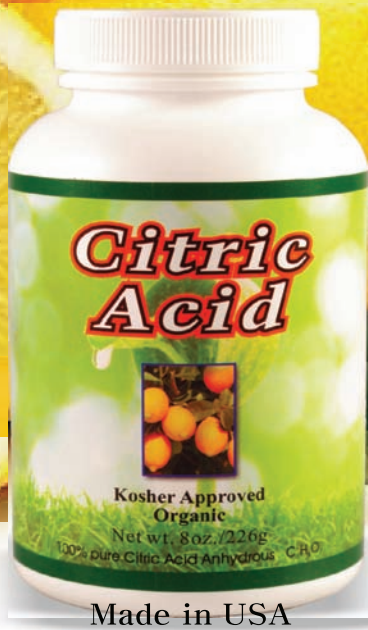
7병을 100불에...

Citric Acid \$30/ea 1병은 2-3달분
매일의 30배, 레몬의 200배의 농도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구연산



노벨상 3회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주어 피로 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성분: 구연산 100%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음식물의 완전 흡수를 도우며 자연치유력에 또한 최대한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인디토텐신이라는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인슐린과 그 반대 역할을 하는 효소 간에 밸런스가 깨져 생기는데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뇨병을 신속히 호전되게 만든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히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발목 무릎,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유산이 체내에 축적되고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인체 내 젖산 등의 피로물질을 분해하여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며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높여준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며 면역능력을 증진시킨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강한 체질,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연산 복용 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을 예방하고 병원, 약 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뭄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신부전증 복용 2주 후 소변량이 1500cc까지 증가하게 됨.
- ★ 당 수치 220이 한 주 복용 후 110으로 떨어져 의사도 놀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 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아옴.
- ★ 검버섯이 구연산 복용 후 한 달이 지나 없어지거나 약해짐.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손발이 저리고 마비증세가 있었는데 복용 한 주부터 사라짐.
- ★ 늘 서서 일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데 구연산이 해결해 줌.
- ★ 어깨 결림과 루마치스 관절염이 복용 두 주부터 없어졌음.
- ★ 햇바닥 깊이 갈라져 항생제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이틀만에...
- ★ 심한 당뇨에 구연산 먹고 저혈당도 경험해보고 당 조절이 됨.
- ★ 7년된 피부암이 석 주 동안 구연산만 먹고 새 살이 돌아났음.

- ★ 고혈압 220인데 구연산 먹으면 금방 떨어져 120-135가 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찍어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 ★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 ★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정상으로 됨.
- ★ 비염이나 콧물에 고생했는데 구연산 3개월 먹고 좋아졌음.
- ★ 고혈압 220인데 구연산 먹으면 금방 떨어져 120-135가 됨.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대신 구연산을 넣으면 꼬들꼬들 참 좋음.
- ★ 밥을 할 때도 국을 끓일 때도 구연산을 타는 습관이 생겼음.
- ★ 한 달에 5불 구연산이 100불짜리 건강제품보다 월등히 좋음.
- ★ 나는 다른 제품이 없어도 구연산만 있으면 건강하게 산다.

100% 미국 야생 천종 산삼

산삼 가격 파괴 가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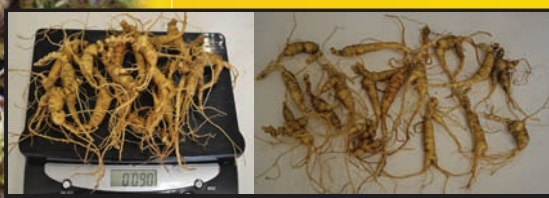
대	산삼 수령	뿌리당 무게	뿌리수/LB	가격/454g
대	1호-2호 Mixed (60년-120년근)	1호:23-35그램	20-30뿌리	\$1,200/LB
		2호:15-22그램		
중	3호-4호 Mixed (20년-60년근)	3호:9-14그램	33-60뿌리	\$900/LB
		4호:5-8그램		

(지난해의 가격에 비해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산삼 기획 상품 가격표

시행일: 2011년 9월 8일

가 격	무 게	뿌리 개수	산삼 수령	중전무게
\$200	90그램	15뿌리-20뿌리	평균 30년근	70그램
\$600	250그램	20뿌리-30뿌리	평균 50년근	200그램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60여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 업체

타 업체보다 2~3배 싼 가격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 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개자를 드립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A. 본 점 (213) 365-2100
O.C. 직영점 (562) 760-2359

월-금: 10am-7pm, 토: 11am-5pm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미 서부 침례신학교
 I-20 발급, 장학금 및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가능
 1월과 6월 2주간 집중 강의로 3년 내에 D.Min. 취득 가능
 GTU, UC Berkeley로 대학원 과정 수강 및 Ph.D. 수학 가능
 M.A. in Community Leadership는 평신도 지도자 프로그램



760 South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00-2592 / baptistbob@verizon.net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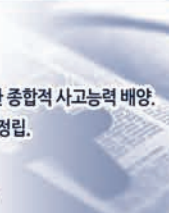
3130 Wilshire Blvd #4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9800 / Fax: 213-384-789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u.org

Solution for Tomorrow



Customized Solution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시공, 감리, 교육 및 정기점검까지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 Total System Integration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Recording Studio를 기반으로 한
 - Music Production
 *최신 HD 영상 장비를 갖춘
 - Digital Film/Video Production
 *최신 장비로 무장한 라이브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 Live Production 까지
 Laservision World에 오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전문 음향, 영상, 조명의 Total Digital Custom Solution을 제공 해드립니다.

- Laservision World만이 드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
1. 풍부한 방송 System 시공 및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2. 2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자라온 안정된 회사입니다.
 3. 음향 / 영상 / 조명에 관한 토달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경비와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립니다.
 4. Supervising System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System Integration을 진행합니다.
 5.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여 드립니다.
 6. 에너지 절약 디자인을 최우선시 합니다.
 7. 시공 후 Training과 Service 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8. 일에 필요한 License와 책임에 관한 Insurance & Liability를 갖고 있습니다.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가장 큰 이슈도 “역시 경제”

번영 위해서는 강력한 도덕적 토대 필수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경제 문제를 현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핫이슈로 꼽았다.

이는 전미복음주의협회(NAE)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로, NAE 회원들은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들로 대부분이 경기 회복, 빈곤층 감소, 실업난 해소, 국가 부채 감축 등 모두 경제와 연관된 이슈들을 지목했다.

NAE 정부 관계 부서 부담당자인 켈런 캐리는 크리스천포스트에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의 경제적 안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공정성에 기반한 강력한 도덕적 토

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NAE를 포함한 복음주의 그룹들은 낙태, 동성결혼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에 있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부각시켜 왔다.

그러나 많은 사회적 보수주의 복음주의 그룹들은 경제적 이슈들이 이들 사회적 이슈들과 직결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제 다음으로는 많은 NAE 회원들이 외교 정책을 주요 이슈로 뽑았다. 특히 종교자유와 중동 불안정과 관련한 이슈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NAE는 미국 내 40개 교단의 4만5천여 복음주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손현정 기자



NAE 대표회장인 리스 앤더슨 목사

부자 증세? 성경 보면 이렇게

제 60회 국가조찬기도회 워싱턴 DC서 개최

2일 오전 제 60회 미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기도회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 문제나 부자 증세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를 자신의 신앙 혹은 성경 구절과 연결지어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경에서도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눅 12:48)’라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내가 책임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빛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인들과 학생 대출로 힘겨워하는 청년들, 페이먼트를 내는 데만도 버거운 중산층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들(부자)이라면, 감세 혜택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도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국가조찬기도회의 연설이 너무 정치적이거나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멘토 목사인 조엘 C. 헌터는 “그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현 사안의 경제적인 면 뿐 아니라 도덕적인 면”이

라며 “그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이 그의 신앙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대변했다.

한편, 남침례회 리처드 D. 렌드 회장(윤리 및 종교 자유부)은 “이제껏 들었던 국가조찬기도회 연설 중 가장 정치적인 연설”이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연설 이후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설이 ‘유감’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조찬기도회는 늘 주최하던 ‘The Family’ 대신 의회 멤버들에 의해 주최됐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53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래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참석해 왔다. 행사의 목적은 국가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더 나은 길”을 모색하며 기도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중 ‘이슬람, 이슬람적’이라는 단어를 총 3번, ‘유대인, 유대교’라는 단어를 3번, 힌두교라는 단어도 1번 사용해 종교를 초월한 이해를 촉구하려는 노력도 엿보였다. 이 행사에는 영부인 미셸 오바마와 부통령 조 바이든도 참석했다.

권나라 기자

워싱턴주, 동성결혼법 상원 통과 충격

하원도 지지층 넓어... 미국서 7번째 합법화 주 확정적

미국 워싱턴주 상원이 2월 1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주 상원은 수요일 저녁 찬성 28표, 반대 21표로 동성결혼 인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주요 지지자였던 에드 머레이 상원의원은 “결혼은 사회에서 정의하는 가족을 말한다. 결혼은 커뮤니티가 인정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커플들의 결합이다”라고 선언했다.

동성결혼 반대자로 상원 투표 현장을 지켜본 제인 스탠턴 씨(56)는 “나는 기독교인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매우 통탄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선언되면 하원 투표를 남겨 두고 있지만, 하원 내에서는 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성결혼 합법화는 거의 확정됐다.

하원만 통과하면 워싱턴주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와, 뉴욕에 이어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일곱 번째 주가 된다. 이의 워싱턴 DC

에서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워싱턴주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6월 6일까지 120,577명의 서명을 모아 제출하면 동성결혼 발효를 제지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11월에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충분한 서명을 받지 못할 경우, 당일인 6월 6일에 법안이 공식 합법화되고 동성애자들도 결혼할 수 있게 된다.

상원에서는 최종 결정을 위해 주민 투표에 부치는 개정안을 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전통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적대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주는 동성애자 파트너십을 인정한 2006년부터 꾸준히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넓혀 왔으며, 올해 워싱턴주에서는 서북미 지역에 본사를 둔 마이크로소프트, 나오키, 스타벅스 등 대기업이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나서 임금을 발휘했다. → 15면에 관련 기사 권나라 기자

성추행 혐의 롱 목사 예배 중 왕 등극 “황당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목회자 가운데 하나로 꼽히던 에디 롱 목사(뉴버스크서너리침례교회 담임)가 이번에는 주일에 배 중 ‘왕으로 등극’하는 해프닝으로 또 다른 구설수에 올랐다.

유튜브에 올라온 14분 가량의 비디오 클립에는 지난 1월 29일 주일예배 중 설교를 전한 랍비 랄프 메시에 의해 그가 왕좌에 오르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예피소드는 지난 29일 주일 예배 당시 신앙에 기초한 다양한 그룹과 문화, 전세계 교단 사이의 종교적 토론을 이끌어 낸다는 취지로 주일 설교자로 초청된 랍비 랄프 메시에가 토라의 가르침을 들어 ‘생생적인 삶’에 대해 전한 뒤 발생했다. 이날 예배는 가장 많은 이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였다.

그는 설교를 마치고 롱 목사에 게 돌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우슈비츠의 죽음의 캠프에서 건져낸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히브리어 두루마리’라는 것을 증명했고, 이와 동시에 웅장한 음악이 깔리면서 이 랍비는 롱 목사가 지금 정의와 축복의 장 사이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고, 예배 참석자들은 에디 롱 목사가 공중에 들린 의자에



에디 롱 목사가 예배 도중 왕좌에 앉은 것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앉은 상태에서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은 대부분 ‘황당하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며, 롱 목사가 ‘왕으로 등극’한 것에 대해 ‘혼란스럽다’, ‘회의적이다’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에디 롱 목사는 조지아 리토니아에 위치한 뉴버스크서너리침례교회 담임으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25,000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교회에 출석하던 젊은 남성 네 명으로부터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고소당해 명성에 타격을 입었고 1년 뒤 합의에 의해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이후 두 번째 부인인 바네사 롱이 이혼을 제기했다.

박현희 기자

로버트박 선교사 북한 상대로 소송 추진

외상후장애 시달려, 2회 자살 시도까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위해 홀로 임북(入北)했다 모진 고초를 겪고 풀려난 로버트 박 선교사가 자신을 고문한 북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 선교사는 지난 2009년 12월 25일 성탄절 압록강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다 43일만에 풀려났다. 그는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 선교사 측은 “북한은 박 선교사를 감금한 43일간 여러 극심한 고문들을 자행했으며, 이는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판정받았고, 정신적 트라우마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두 차례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다.

박 선교사는 “소송은 금전적



지난달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진 로버트 박 선교사

손해배상에 뜻을 두고 있지 않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북한정권의 대대적인 잔학행위와 지금도 계속되는 학살에 대항하는 의미로 전액을 북한인권 단체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송의 이유는 지난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을 통해 북한에 소송을 걸어 미 연방정부 판사의 승소 판결로 당시 6500만불을 손해배상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대웅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기독교일보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최저 1¢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칼라 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탈전문!



FMB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미꾸라지가 자라면 용이 됩니다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한 번은 청년부 자매 한명이 황당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미꾸라지가 자라면 뭐가 되게요?" 풍만지 같은 물음에 나도 모르게 비슷하게 생긴 큰 물고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메기냐? 장어인가? 아니면, 용이냐?" 그러자, 그 자매가 멋쩍은 얼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꾸라지가 자라면 미꾸X(엑스)라지가 됩니다!" 기상천외한 답변에 저도 한 마디 해 주었습니다. "야, 이놈아! 그럼, 완전하다 자라면, 미꾸XX(투엑스)라지가 되냐?" 자지러지게 웃는 자매에게 골똥한 입담으로 너스레를 떨고 뒤돌아 서려는데 갑자기 머리 속에서 생각샘이 요동을 칩니다. 미꾸라지는 아무리 자라나도 미꾸라지 밖에는 안 되는가? "미꾸라지 웬됐다!"라는 속담은 그냥 보잘 것 없는 미꾸라지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누군가가 꾸며 낸 속담일 뿐인가?

신학생 때부터 늘 하나님께 던지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후천개벽(後天開闢)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왜, 내 주변에는 그런 인물들이 없나요?" 사실, 우리가 자라면서 읽은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그 싸수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최악의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었던 위인이라 하더라도 그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법이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여, 위인전은 "그가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과 격려보다는 "그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족이다"라는 좌절감을 확인시켜주는 "운명론" 같았습니다. 미꾸라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메기나 장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용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장난이었습니다. 적어도 나의 청년기는 이 미꾸라지 콤플렉스에서 한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진흙탕같은 개천이 싫어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다시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듯 난감한 항상 나를 죽쇄처럼 몰아매며 시간을 축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미국으로 관광을 오는 한국의 동료 목사들을 맞으러 공항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지 우리는 모두 중늬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관광을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들에게 들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입니다. 아직도 나는 미꾸라지인데 그들은 나를 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꾸라지가 자라면 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스스로를 낮잡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꾸라지와 용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그렇게 보는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맹
 지사망 :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718) 228-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평가의 시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정보습득이 그 어느때보다 용이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중국음식을 먹고 싶을 때 인터넷에 접속해서 맛있는 중국요리를 하는 중국음식을 검색해보면 됩니다. 굳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귀찮으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근처에 맛있는 중국요리집에 관한 정보를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마 2, 3분도 지나지 않아 맛있는 중국요리를 하는 식당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스마트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저의 스마트폰에는 식당이나 커피숍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가 올려져 있

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면 불과 몇초만에 좋은 식당이나 좋은 커피숍, 또는 반대로 형편없는 식당이나 커피숍에 대한 일련 정보가 끝도 없이 나타납니다.

어찌보면 '이 시대는 참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케이션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편리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런 매체들을 통한 각종 평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은 '평가'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세상이 되는 듯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편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촉각을 곤두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회도 집중적인 평

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저도 각종 평가에 때로 심신이 지치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평가에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렵기도 한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내려진 평가에 다시금 오감을 곤두 세우며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성령께서 제게 조용히 질문하셨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그리 예민한데 나의 평가에 대해서는 왜 이리 둔감하느냐?" 예기치 않은 성령의 음성 앞에서 멍해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평가인데, 지금 나는 성령의 평가는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 여러분은 과연 이런 평가의 시대에 누구의 평가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손인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성도의 사랑을

통해 깨달은

크리스천의 영적 원리

나란히 누워 있는 베델의 두 남자

드디어 차승호 집사님의 신장 이식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온 베델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 왔던 기쁨의 소식입니까!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후, 벌써 차 집사님의 얼굴에 흉조가 띄고 건강한 피부색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도 철저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 다시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서 발표하게 되었는데 우리 차승호 집사님에게 신장 한 쪽을 떼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베델교회의 김도성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랑의 결단 아니면, 그리고 주예수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신 황금률의 제자도가 아니면, 결코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도성 집사님은 신장 한 쪽을 떼어주기 위해 UCI 병원 수술실에서 6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차승호 집사님 또한 그 사랑의 선물을 몸에 이식하는 수술을 7시간에 걸쳐 받은 것입니다. 사랑

은 위대한 행동이며 희생입니다. 나란히 옆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 베델의 두 집사님을 문명하면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 주시고 그 온 몸을 믿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쫓겨온 신 주예수의 사랑을 찬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도성 집사님 덕의 어린 두 따님이 처음에는 아빠의 신장 하나를 떼어준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며 울었답니다.

울고 나서 하는 말이, "왜 진작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미리 알려 주었으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겠는데" 하더군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다시 한 번 제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 신 앙으로 키워낸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의 확신을 갖고 있구나 하는 감동이며 또한 그런 아빠의 예수뉘시기와 희생의 정신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일생을 주 앞에 올곧게 살 것인지 확신하게 되는 감동이었습니.

차승호 집사님이 신장 이식수술을 받자마자 얼굴색이 달라지고 당장 음식을 먹기 시작하며 몸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깨달은 것이 많습니.

건강한 신장을 이식받자마자 피가 결러지고 혈관이 작동하며 온 몸에 맑은 산소가 공급되어 그렇게 결모습까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예배가 없어지고 말씀 공급을 받지 못하며 찬송이 떠나버린 성도들을 보면 어느새 얼굴이 컴컴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나 신장 이식이 이루어지듯이 고난 가운데, 고통스런 체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 놀랍게도 얼굴이 달라지고, 음성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나란히 병실에 누워 있던 두 분의 베델성도들을 바라보며 이것저것 깨달은 삶의 원리, 신앙의 비결이 너무나 많습니. 할렐루야!

눈이 침침하십니까?

[죽침] 시력저하, 노안, 안구건조증,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죽침은 대나무로된 재질로써, 눈 주위의 근육과 경락을 자극하여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침의 우수성은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초진 무료! T213-380-0853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원 대학 교수
 3030W. Olympic Blvd., #202-203, Los Angeles, CA 90006
 (삼호관광 몰 2층)



골반이 바로서야 척추가 바로선다



윤제필 원장
자생한방병원 미국분원 대표

몸에 맞는 의자와

바른 자세 유지가

척추 건강의 첫걸음

뒤에서 보면 과장되게 엉덩이를 쫄록 거리며 걷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짝궁뎡이, 혹은 오리궁뎡이라고 우습게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 골반의 움직임은 섹시 아이콘으로 삼은 스타도 있다.

미국의 영원한 섹시 아이콘 마릴린 먼로는 먼로 워크(monroe walk)라고 하여 특유의 뒤통거리리는 섹시한 걸음걸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하이힐의 한쪽 굽을 짚기도 하였는데, 그녀의 이러한 매력적인 걸음걸이는 그녀를 미국, 아니 세계의 연인으로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짝꿍거리리는 걸음이 오래 되어 골반이 뒤틀리며 고질적인 허리병도 얻었다고 하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거짓은 아닌 듯 싶다.

아주 드물게는 마릴린 먼로처럼 인위적으로 다리 길이를 차이내게 하여 골반의 뒤틀림으로 인한 척추질환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연적으로 다리길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반복적으로 슈팅 동작을 하는 축구 선수들에게서 다리길이가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데이비드 베컴도 왼쪽다리가 더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다리길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다리길이의 차이가 2cm 이상 나거나 걸을 때 눈에 띌 정도로 몸이 틀어진다면 골반의 균형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반을 틀어지게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평소 한쪽으로만 몸을 지탱하는 습관이나 다리를 꼬고 앉는 경우, 두 다리를 한쪽으로 모아서 앉거나 뒷다리머리에 지갑을 넣는 동작 등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골반을 불균형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비틀린 골반은 척추의 형태를 바꾸고 무릎통증을 유발하며, 골반이 지탱하고 있는 장기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생식기가 모여 있는 골반 주위의 기혈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성은 성기

능 저하, 여성은 생리통과 냉대하 등의 동반 증상이 나타난다.

골반이 틀어진 경우 똑바로 누웠을 때 좌우 팔, 다리 길이가 맞지 않거나 발이 벌어지는 각도가 다르고, 엎드려 눕거나 서있을 때 양쪽 엉덩이 높이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여성의 경우 치마가 한쪽으로만 자주 돌아간다면 한쪽의 구두굽이 빨리 닳았다면 골반 이상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또한 걷고 난 후에는 한쪽 다리만 더 잘 붓거나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발목을 자주 삔다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료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뒤틀린 골반은 결국 척추의 S라인에도 변형을 가져와 걷거나 뛰는 등의 가벼운 외부충격에도 디스크 탈출과 같은 큰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이러한 골반 이상 환자에게 빼놓아진 골반을 바로잡는 추나수기요법과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강화 시키기 위한 추나

약물요법을 꾸준히 시행하여 교정 치료를 한다.

요즘 사람들은 서있거나 걷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발만름이나 골반도 체중부하를 많이 받게 된다. 오래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좋은 의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의자를 고를 때는 의자가 너무 높아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허리가 등받이에서 떨어져 척추에 무게가 많이 실리므로 자신의 키에 맞는 의자를 골라야 한다. 그밖에 너무 딱딱한 것, 엉덩이 받침이 너무 길거나 앞뒤 폭이 좁은 것, 팔걸이가 없는 것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자를 사용한다고 해도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골반이 비틀려 진다면 소용 없는 일이다. 따라서 바르게 앉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몸을 살짝 뒤로 젖혀 엉덩이부터 어깨 끝까지 등 전체가 등받이

에 닿게 해 체중을 분산시켜야 한다. 엉덩이만 의자에 살짝 걸치고 앉거나, 허리를 꼴뚜기 세우고 앉으면 목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르게 앉아 있다고 해도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 또한 좋지 않다. 오래 앉게 되면, 앉아 있을 때 사용되는 뼈와 관절, 그리고 근육만 피로해져 척추가 약해질 수 있다.

적어도 50분마다 5분씩 몸을 움직이면서 쉬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스트레칭을 하거나 방 한 바퀴를 돌거나,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것만으로 뼈와 근육이 만성적으로 피로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평상시 몸에 맞는 의자와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골반의 틀어짐을 막는 것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라고 생각된다.

경희대학교 한의학 박사
한방 재활의학 전문의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편집위원
윤제필

전쟁 앞에 우리는...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희생과 섬김의 정신이

공동체의 일치와

건강한 사회 꿈꾸게 해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일선 지휘관으로 참전했던 이근택 예비역 대령이 1973년에 6일전쟁의 격전장이었던 골란 고원을 방문한 후, 이스라엘의 6일전쟁을 지휘한 전쟁 영웅 모세 다이안 장군에 대한 추억담을 이렇게 전해 준 적이 있었다.

“국방장관 다이안의 집무실은 4명 이상이 앉을 수 없는 작은 방이었다. 그에게는 허례와 과장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전쟁터의 사령부 텐트와 같은 분위기의 집무실에서 그는 부하들을 친밀한 동지로 대하였다. 그의 이런 정신은 오늘날 이스라엘군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스라엘 군 장군의 집무실에는 응접 세트나 소파 같은 가구라곤 도무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다이안 장군은 ‘부상당한 전우를 전쟁터에 버리지 말라. 부상병을 보면 1대1로 서로 구출할 책임이 있다’고 명령을 했었다는 설명

을 들었다.

다이안 장군의 이런 자세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최고 사령관으로부터 신병에 이르기까지 일체감을 이루었다.

이 때문인지 지금도 골란 고원 중턱에 마련되어 있는 전사자의 동판에는 희생자의 대부분이 소대장과 중대장들의 이름으로 가득차 있다고 한다.

이것이아말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시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랍 국가를 상대로 6일만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한 원인이 아니겠는가?

장군에서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하나 남의 희생을 담보로 전쟁을 이겨보겠다는 이기심의 모습은 6일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군대에게서는 결코 찾아 볼 수 없었다.

6일전쟁은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남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이스라엘 민족 특유의 애국심과 희생과 섬김의 정신에서 온 결과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일전쟁이 터졌을 때 LA 국제 공항에는 1층과 2층을 사이에 두고 너무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된 다음날(1967년 6월 6일) LA 국제 공항의 출구 전용 2층은 10대 말, 20대 초의 유대인 젊은이들로 붐볐다고 한다.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 청년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 직항 비행기로 조국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날 1층 국제 공항 입국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어른, 아이, 청년 할 것 없이 피난 bootcamp를 쟁겨서

재빨리 안전지역인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아랍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의 희생을 요구하는 단체와 국가는 소망이 없다. 그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지고 속하여 있는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기꺼이 남을 살리려는 의식과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그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될 수 있고 하나될 수 있는 공동체만이 소망이 있으며 미래가 있다.

지금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사회인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남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사회인가?

자신의 유익과 관계된 일이라면 쫓겨나고 밤을 세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면

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 앞에서는 어떻게든 피해 보려 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에서부터 우리의 사회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모두 전쟁 앞에서 있는 자들이다. 경제의 전쟁, 사상의 전쟁, 문화의 전쟁, 생존의 전쟁, 인생의 전쟁, 이런 모든 전쟁 앞에 우리가 과연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이 시점에 우리는 모세 다이안 장군의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상당한 전우를 전쟁터에 버리지 말라. 부상병을 보면 1대1로 서로 구출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두고 온 조국과 우리의 사회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이 영적인 모임 꿈, 교회를 다시금 하나되게 하고 소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길일 것이다.

미주개혁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I-20 (F1비자) 학생 모집 합니다

*최신의 영상시스템 *최상의 학업 분위기 *최고의 교수진으로 함께 수업합니다.

▶ 모집학과 : 신학 선교 문예창작 종교음악 목회상담

학교주소: School Address, 3010 Wilshire Blvd #208, LA CA 90010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 Email:reformeduniversity@yahoo.com

Website:www.reformeduniv.org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 집·건물 경매 STOP!!! ★

긴급경매 NOT, TRO, QWR, BK 전문
• 최장기간 연장 "합법거주" 약속 퇴거명령번호, 연방법, 주법 의거할
• 그외 형사상채, 마약소지및판매, 강도, 강간, 폭행, 배우자폭력, 음주운전...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이 변호합니다"

메리츠 법률그룹 / 이진우
18000 STUDEBAKER ROAD, #700, CERRITOS, CA 90703
TEL: 888-210-1238 / FAX: 888-210-1239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2월 24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해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숙성과정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독사님 추천서 10% 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편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라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사과 판매다 각종 조립식 선반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마켓용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통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금 샅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Natural Hot Spring!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951) 674-2581 / 9997
1-15 South Exit Main Street

삼성이 하면 다름이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나 JJ 플러밍

-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 싱크대, 욕조, 반기 등
- ▶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 교체
- ▶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 각종 Faucets, 디스포저,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www.knmedia.com
1.888.894.8949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 (213) 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asafterschool.blogspot.com

영어 말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건강한 신장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은들마루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군인 정신으로 복음 위해 달린다

한국 군 진중세례식, 다양한 세미나로 복음 전파에 최선 노력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장교회 회장 김희창 목사 인터뷰

얼마 전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장교회 총회에서 회장에 김희창 목사(말씀새로운교회 담임)가 취임했다.

기독교장교회 회원들은 월 1회 모임에서 교제를 갖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회원들은 보통 군대에서 지휘관을 맡았던 이들이기에 개성이 강할 수도 있지만 한자리에 모여 섬기는 모습은 어리만큼 같다고 한다.

임원진은 부회장 김한선 장로, 최훈일 목사, 총무 강정호 집사, 협동총무 이경호 목사, 서기 겸 회계 이진섭 장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희창 회장은 “과거 화려했던 경력과 역경을 이겨 냈던 경험을 활용해 좋은 선교 자산으로 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도의 영성을 가지고 선교 지도력을 발휘하는 올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창 목사는 말씀새로운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며, 서울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프로비던스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그 레이신학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장교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단체는 한국 예비역기독교장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주복음방송사를 설립한 임종희 목사가 30여년 전에 처음 LA에 오셨을 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월남전쟁과 한국전쟁을 치른 분들과 군대에서 헌신하신 분들이 나누는 친교의 장과 제대하신 분들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 모임의 주목적이다.

매월 1회 두번째 화요일 오후 6시 30분 미주복음방송 4층 세미나실에서 모이고 있다. 회원들 중에는 장군 출신들과 영관급, 위관급이 참여하고 있고 아내들과 함께

과거 경력이 훌륭한 선교 자산 되길 한국과 미국, 이민사회 위해 기도하며 겸손히 주의 일 섬기고 싶어

성심성의껏 모임을 갖고 있다. 회원들이 자진해서 돌아 가면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 또 강사를 초청해서 1년에 서너 차례 특강을 하고 있다. 특강에서 필요한 것들을 상기시켜 주고 회원들끼리 서로 격려를 하는 프로그램도 갖고 있다.

이들이 군대에서 리더십을 지녔었지만 제대해도 리더십이 있다는 것이다. 이민사회에 살면서 고국을 보는 시각으로 한국과 미국을 위해 그리고 시대의 도덕성 회복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모임에는 20~30명이 모이고 회원은 60명 정도 된다. 이들이 군대에서는 다 지휘관이었지만 열심을 다해서 겸손하게 주의 일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진다.

목사님의 군목생활은 어떠했나.

12년 전에 제가 쓴 ‘해병대와 파위미션’이란 저서가 있다. 4년 동안 해병대에서 군목생활을 하고 해병대 군수사령부 군정실장으로 있다가 제대를 하고 10년 후에 쓴 책이다.

초임자는 연평도 해병부대였다.

몇 해 전에 연평도 포격을 받은 곳이 눈에 촘촘하게 선다. 그곳에서 매일 커피를 끓여서 지프차 끌고 전방에 가서 군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왔다.

군목사역의 특징은 종교 활동이다. 인격지도교육과 전방에 가운 활동하는 게 주업무다.

그렇게 군인들 1800명에게 세례를 줬다. 그 지역 해병대원들이 세례를 많이 받았다. 많이 바쁜 생활이었다. 주일에 새벽부터 밤 9시까지 8번 예배를 드리고 군수사령부 군정실에서 업무를 봤다.

제대하고 나서 한국에 길감교회를 개척했다. 해군 가족들이 개척자금을 지원해 줘서 개척자금 절반을 지원 받았다. 목회 방향은 선교 중심적인 목회였다. 개척 후 얼마 안돼 자리를 잡으면서 수백명으로 구성된 길감 선교회가 조직됐다. 교인들 중에 군인들이 많았다.

군대에서 많은 기독교인이 전도되고 있다. 군대 가서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는 등 군대는 선교의 황금어장으로 남아 있다.

기독교인 회원들이 매 10월 이기흥 목사(사우스배이선교회 원로목사)를 중심으로 군대를 후원해 주고 있다. 매회 논산훈련소 세례식에서 3천명 이상이 세례를 받는다. 고된 훈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잡는 찬스를 잡게 되는 것이다.

외부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남가주 지역에서 성구 암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주최하고 있다. 또 6.25 전쟁에 대해 남한이 북한을 침입했다고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한국의 기독교장교회와 연대해서 6.25 전쟁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CD를 제작해 매년 6월에 보급하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5월에는 ‘어머니 영성의 파워’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10월에 이기흥 목사가님이 논산훈련소 합동세례식에 다녀와서 보고를 해 주신다.

올해 계획을 말씀해 달라.

6월에 임마누엘선교회 류종길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해 6.25를 주제로 해서 한반도 특별 행사를 가지려고 한다. 6.25를 상기하면서 역사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북한을 잘 인도해서 민족이 화합하게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남가주 기독교장교회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기독교장교회에서 과거 화려했던 경력과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을 잘 승화시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선교 지도력을 발휘해 사도의 영성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갖고 바른 신앙관을 소유해야 한다.



김희창 목사

동성결혼 지지 스타벅스 불매해야

워싱턴주 동성결혼 논쟁에 토종기업 스타벅스는 찬성 표시

워싱턴주에서 추진 중인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공식 지지 의사를 밝힌 스타벅스에 대해 기독교인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한 미국 목회자가 주장하고 나섰다.

USA크리스천미니스트리즈 스티븐 앤드류 목사는 “스타벅스는 죄를 부추기고 있다”며 “성경은 동성결혼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며, 축복할 수 없다고 가르친

다”고 강조했다. “강한 기독교 국가 만들기”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목회자들은 설교에서 이것을 말하고, 종교단체들은 스타벅스의 입장에 반기를 들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사랑하겠는가? 만약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반대하는 것을 지지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펼쳐야 한다.”

앤드류 목사는 “미국인 중 80%가 기독교인이고, 1~2%가 동성

애자들인데, 스타벅스가 고객 중 80%를 잃어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비즈니스 차원에서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스타벅스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의의 길로 인도되길 바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독교인

80%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목사는 “스타벅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뭐든 할 수 있다. 원한다면 사단을 따를 수도 있다. 문제는 무엇이 죄인지만 간하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권나라 기자

이탈크비비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한달에 \$24.99로 미국 전지역 PLUS 한국 포함 27개국 무제한 통화

365일 한국어 상담

情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이탈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 **이탈크비비** 가입하시면, **3개월 무료!**

글로벌 플랜 **\$24.99/월**

-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월**

- 만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무료 부가서비스

- My Korea Number 마이코리아넘버** 한국 7개 전역에 무료입니다! 나만의 한국 전화 번호를
- iTalkGlobal 이탈크글로벌 내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우수 후기 당첨 (1년 무료)

(신영재, California 거주)

우리는 큰아이들이 한국에 있어 자주 한국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때문에 이탈크비비가 나에게 딱히 맞는 상품이었다. 그 전에는 한국으로 전화를 하려면 돈을 조금 아끼겠다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불편하고 결과적으로 돈도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탈크비비를 사용하면서 불편함과 돈도 절약되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탈크비비의 더욱더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화이팅!!! 사진은 사랑하는 막내들과 함께.

이탈크비비 가입 후, 사은 용품을 보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고객지원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 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이탈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30일 환불 보장!

*3개월 무료 프로모션 -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에 한합니다. 총 15개월의 계약 기간이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무료와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 행차시 위약금 (\$69.99) 과 보상 받으신 후 금액 합산 부과 됩니다. 모든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넘버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환정을 생각하는 기업, 이탈크비비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
메 디 케 어

CA License #0H66712

1947년생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에서는

1. 현재 1947년 5월생입니다. 아내가 1949년생입니다. 아내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직장 건강 보험으로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 건강 보험료를 \$500 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MEDICARE를 신청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아내의 건강 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2. 1947년생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지 정확히 5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달 소득은 \$4,000.00 입니다. MEDICARE를 받을 수 있습니까?
3. 1947년생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었지만 세금보고는 10년 이상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MEDICARE를 신청 할 수 있습니까?
4. 1947년생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었고 세금보고도 10년 이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소득은 \$1,226.00 정도 입니다. 그리고 매달 SOCIAL SECURITY연금에서 \$99을 공제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연금에서 MEDICARE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5. 1947년생입니다. MEDICARE는 언제 신청하여야 합니까?
6. 1947년생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MEDICAL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MEDICAL은 어떤 건강 보험이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신청 하여야 합니까?
7. MEDICARE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처방약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저는 \$45.00을 지불하고 친구는 \$2정도 밖에 지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저렴하게 약을 살 수 있나요?
8. MEDICARE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MEDICAL이 없어도 MEDICARE 보험료가 SOCIAL 연금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데, 나는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MEDICARE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9. MEDICARE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소득은 \$1,226.00 정도 입니다. 매달 SOCIAL 연금에서 MEDICARE 보험료로 \$99을 공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 부부가 받는 소득은 \$1,026.00 입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10. 저는 1947년생이며 지금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은퇴하려고 합니다. 지금 MEDICARE를 신청하여야 합니까?
11. 세금보고를 지난 몇 년 동안 하지 않아서 MEDICARE CREDIT가 30 CREDIT 정도 입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 보고 후 MEDICARE CREDIT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세금 보고시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12. MEDICAL은 언제 신청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13. 장애인입니다. 소득은 부부 합산 \$1,536 이 넘습니다. MEDICAL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MEDICARE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4. 55세 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5. 70세 입니다. MEDICARE PART A 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에 은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미군으로 근무하여 TRICARE 라는 보험에 있습니다. MEDICARE는 PART A 만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65세가 되어 MEDICARE를 받게 되는데 내 아내는 MEDICARE PART A 만 신청해야 됩니까?
17. MEDICARE와 MEDICAL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가거나 병원에 갈 때 내 자녀에게 전화해서 매 번 부탁해야 되는데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갈 때 교통편이 제공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18. MEDICARE와 MEDICAL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에 가는데 치료비가 매우 부담이 됩니다. 치과 치료가 보장 되는 MEDICARE나 MEDICAL 보험이 있습니까?
19. 70세입니다. 아내는 한의사입니다. 저는 67세에 MEDICAL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올 해 MEDICARE CREDIT이 36점입니다. 영주권자 이고 미국 거주 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MEDICARE를 신청 할 수 있습니까?
20. 62세부터 연금을 받고 있어 65세가 될 때 MEDICARE CARD 받았습디다. 그런데 B는 보험료를 매달 \$115.40을 내야 한다고 해서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온 서류에다 사인을 하여 MEDICARE PART B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의사방문이 잦아져 개인 부담금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MEDICARE PART B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21. 제 아내는 일을 하고 있고 MEDICARE CREDIT가 40 CREDIT입니다. 아내의 나이는 63세입니다. 저는 세금보고를 4년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저는 65세가 되는데 MEDICARE 를 신청 할 수 있습니까?
22. 저는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MEDICARE TAX를 내지 않았다고 CREDIT 이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아내는 58세 이고 FULL TAX CREDIT 이 있습니다. 아내의 CREDIT 으로 MEDICARE를 신청 할 수 있습니까? 신청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23. 부부가 은퇴해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1,000.00 미만 인데 BANK 에 \$100,000.00의 CD 가 있습니다. 약 보조 PLAN이나 MEDICARE PART B 보험료를 보조 받는 플랜이 가능 할까요?
24. MEDICAL을 받고 있고 67세입니다. TAX CREDIT은 20 CREDIT입니다. MEDICARE를 신청 할 수 있습니까?
25. 미국에 와서 TAX 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5년 이상 거주 영주권자입니다. 65세가 되어서 MEDICAL 을 신청 했는데 나왔습니다. MEDICARE 도 받을 수 있습니까?
26. 50세 된 딸이 18년 동안 DISABLE로 SSI를 받고 있는데 MEDICARE 신청이 가능한가요?

메디케어 세미나 일정

*세미나는 꼭 예약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FEB 11 장소: LA사무실
시간: 오전 10시

FEB 18 장소: Torrance사무실
시간: 오전 10시

FEB 25 장소: Buena Park사무실
시간: 오전 10시

하나 헬스 대표 데이빗 강 라디오 메디케어 세미나 스케줄

FEB 15 오전 11시 아침마당 라디오 코리아

FEB 29 오후 1시 라이브 데스크 질의 응답 시간 /라디오 코리아

고객서비스 1-855-386-3088 Fax. 213-386-3992

※ 토요일과 일요일은 예약하시면 상담합니다.

새로운 에이전트 모집 전문교육 제공



PRESIDENT :
DAVID KANG
Lic.#0F16211

Tel.213-500-4563

3600 WILSHIRE BL 1620
LOS ANGELES, CA 90010

2350 SEPULVEDA BLVD #A
TORRANCE, CA 90501(금요일 근무)

IRVINE 사무실



ALLEN MIN
LIC.#0D19973

Tel.714-315-5933

6011 ORANGETHORPE AVE #A,
BUENA PARK, CA 90620

TORRANCE 사무실



DISTRICT MANAGER :
SARA IM
LIC.#0F07269

Tel.310-702-7006

20695 S. WESTERN AVE #240
TORRANCE, CA 90501

BUENA PARK 사무실



DISTRICT MANAGER :
MI YOUNG HONG
LIC.:0672051

Tel.714-715-6345

6011 ORANGETHORPE AVE #A,
BUENA PARK, CA 90620

저희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광고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상기의 정보는 특정 상품의 광고가 아닌 시니어 건강보험에 전반적인 교육자료입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